

5·18암매장 흔적 발견 못해...유해는 어디에

옛 광주교도소 유력 40m 구간 1차 조사 성과없이 마무리 남은 구간 조사 속도...서쪽 담장 부지 또 다른 암매장 추정 관심

옛 광주교도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5·18 행방불명자 암매장 추정지 1단계 발굴조사가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재까지 암매장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5·18기념재단과 5월 단계는 남아 있는 조사 구간이 더 많은 만큼 희생자를 찾기 위해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9일 5·18재단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교도소 북쪽 담장 바깥쪽 순찰로 인근 전체 발굴 구간 117m 중 1단계 40m 구간에 대한 발굴 작업을 완료했다. 재단은 남은 2개 구간 77m에 대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6일부터 문화재 발굴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 재단은 이날까지 애초 목표했던 지하 1.5m 지점까지 판 것으로 나타났다. 발굴과정에서는 지하 20cm~100cm 지점에서 과거 상하수도·통신용으로 매설된 배관 8개와 생활 쓰레기 등이 발견됨으로써 그동안 수차례 굴착됐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재단은 배관 매설지점보다 유해들이 더 깊은 곳에 매장됐을 것으로 보고 발굴을 진행했다. 하지만 유해는 나오지 않았고, 기반토 색깔에서도 특이점을 찾지 못해 암매장 정황도 확인할 수 없었다.

재단은 발굴 실무를 맡은 대한문화재단 구원과 나머지 2개 발굴 대상지에 대한 발굴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직선 거리로 80여m에 달하는 나머지 구간도 1단계와 마찬가지로 40m씩 2개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은 다시 10m 씩 4개 부분으로 쪼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단은 1개 구역 당 발굴작업에 하루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통틀어 10여일이면

전체 발굴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단계 조사를 통해 발굴구간 전체에 각종 배관이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배관 깊이까지는 중장비를 동원해 굴착에 속도를 내고 배관부터는 문화재 발굴방식을 활용한다.

1단계 발굴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교도소 내 또다른 암매장 추정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5·18재단은 교도소 북쪽 담장 외에도 광주·담양간 호남고속도로와 인접한 서쪽 담장 부지에도 5·18희생자들이 암매장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신을 5·18 당시 교도소에 주둔했던 3공수여단 소속 부사관이라고 밝힌 제보자는 최근 5·18재단에 “고속도로 쪽에서 다가오는 시민군 차량을 M60 기관총으로 조준사격해 전복시켰다”며 “총격 등으로 사망한 사람 12명을 가매장했다”고 알려졌다.

한도희 당시 교도소장도 지난 1996년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계엄군이 사살한 시신 8구를 교도소 뒤편 포플러 나무 인근에 암매장했다”며 “(1980년 5월)27일 계엄군이 철수하며 시신을 처리하도록 요청해 광주시청 직원들이 매장된 시신을 옮겼다”고 말했다.

또 3공수여단 또다른 부사관도 지난 1989년 청문회 때 교도소 암매장 지역으로 교도소 담장 남서쪽 모서리 인근을 지목했다.

증언자 2명과 한 소장이 당시 설명한 지역은 고속도로와 교도소 담장 사이로 증언이 일치해 또다른 암매장 추정지로 유력해 보인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9일 광주시 북구 옛 광주교도소 5·18 암매장 추정지에서 발굴 실무자들이 1단계 구간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산문화원, 황룡강 친수공원에서 문화행사 핑계 불법 야시장 논란

구청, 취사 금지 구역에 허가 수능 코앞 소음 주민 반발도

광산문화원이 '생활문화 교류 행사'를 명분으로 선운지구 황룡강 친수공원에서 사실상 '불법 야시장'을 운영하기 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를 관리해야 할 광산구는 황룡강 친수공원의 경우 야영이나 취사행위가 금지돼 있는데도, 기업형 '포장마차'가 주축이 된 야시장 행사를 문화행사로 판단, 임시접용(상용)을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나 인근 상인과 지역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수능 수험생을 둔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수능(11월 16일)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소음 발생이 우려되는 야시장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9일 광주시 광산구와 선운지구 상인 등에 따르면 광산문화원은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신도심인 선운지구 인근 황룡강 친수공원부지에서 '제1회 빛과 열을 문화축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산문화원은 광산구 곳곳에 관련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 등을 게시하고 있으며, 현재 황룡강 친수공원 3만㎡ 부지를 점용하고 포장마차 등 50여개의 행사 구조물도 설치했다.

행사 구조물(부스)에는 기업형 포장마차 등 각종 음식점 등이 들어서고 있으며, 각설이 공연을 비롯한 놀이기구도

10여종이나 설치되고 있다.

황룡강 친수공원의 경우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야영이나 취사행위를 금지한 곳인데, 광산구는 이번 행사를 문화행사로 규정하고 '하천부지 임시접용허가'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사를 주최하는 광산문화원은 지난 1965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광산구로부터 매년 2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황룡강 친수공원 인근 선운지구 상인과 주민들은 상권침해와 소음 등을 이유로 야시장 개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광산구 어룡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58)씨는 “말이 문화행사지, 사실상 포장마차 운영 등으로 수익을 남기는 '돈벌이 행사'다. 이를 허가해 준 구청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 3수험생을 둔 학부모 최모(여·47·광산구 어룡동)씨는 “수능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 옆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야시장을 개최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광산구의 관련 3개 부서는 불법 야시장에 대한 상인·주민의 불만이 잇따르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광산구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하천부지 점용허가 부서의 점용 허가를 받아 이뤄진 행사로, 생활문화 교류행사로 후원을 했다”면서 “또 포장마차의 불법영업, 위생 등의 문제 등은 관련 부서에서 단속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뇌물 사건 위증 혐의 자치단체장 부인 점유 신고

광주지법 형사5단독(김진숙 판사)은 9일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불구속 기소된 전남 모 자치단체장의 아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해당 자치단체의 공무원이었던 B씨의 뇌물 관련 사건에 증인

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3년 군수 관사에 찾아가 A씨에게 2000만원을 주려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B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 /박진표기자 lucky@

인권위 “보호자 동의없이 초등생 생식기 검진은 인격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학교 건강검진에서 보호자 동의없이 남학생들의 생식기를 검진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검사규칙 준수를 권고.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건강검진기관 소속 의사 A씨는 지난해 한 초등학교의 4학년 대상 건강검사에서 “최근 학생의 생식기 기형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검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

라 남학생의 생식기를 만지며 검진했다는 것.

○-이번 사건은 한 피해 학생 학부모 측의 진정 제기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비노기 검사는 이상 증상이 있거나 학생 측이 희망할 때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반드시 보호자나 간호사가 있어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있다”면서 “성기검진은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당혹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 /연합뉴스

7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전 프로야구 선수·조폭 등 40명 적발

배당금 명목 280억원 챙겨

전·현 프로선수 연관성 수사

7000억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와 조직폭력배 등 4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전·현직 프로스포츠 선수와의 연관성 등에 대해 수사를 확

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혐의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42)씨, 조폭 5명 등 17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도주한 13명을 지명수배하고 1명은 기소유예했다.

이들은 2013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6개의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 부당 이익을 챙

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은 국내외에서 열리는 프로 야구와 축구, 농구, 배구, 골프 등 대부분 프로 스포츠 종목에서 이뤄졌다.

판돈 규모는 7000억원이며 운영자들이 배당금 명목으로 챙긴 수익은 280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차명계좌 250여개를 만들어 도박대금을 입금받고, 회원들이 승부에서 패한 금액을 챙겼다.

인터넷 스포츠 관련 카페에 가입, 회원을 모집했으며 회원들에게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고유 코드를 부여하는 등 회원제로 관리했다. 이 도박사이트에 등록된 회원수만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총괄 운영, 회원 모집, 투자 담당, 프로그램 개발·관리 등으로 역할을 나

뉘 조직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A씨는 1993~2003년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 등에서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다가 은퇴했으며, 이들 조폭과 연계해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외국에 서버를 개설하고 주기적으로 도메인을 변경했으며 차명계좌와 ‘대포폰’을 사용해 추적을 피했다. 검찰은 계좌 내역을 추적, 가담자와 도박자금 규모를 확인하고 계좌에 남아있던 불법 수익금 11억원을 추징 보전했다.

이계한 부장검사는 “서민·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사행성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

부동산 투자 !
최 선 규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

오천경매 H. 010-3605-5000